

군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언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al Proposal of
Military Counselling

■ 김상만 Kim, Sang Man

-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센터 선임연구원
- WCC 한국준비위원회 국내협력국장



1.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동기

24시간 함께 지내는 선임병들에게 갖은 괴롭힘을 당하고 힘에 겨워 부모님께 유서를 적어 놓고 죽으려는 장병의 눈을 본 적이 있는가? 늦은 밤 어두운 면회실 문을 굳게 잠그고 면도칼로 손목을 자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는 군복 입은 장병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50도가 넘는 매섭게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서 매달 평균 100명씩 죽어 가는 전장에서 “목사님! 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라며 죽음 뒤를 생각하며 절박하게 몸을 떨며 울부짖는 병사를 본 적이 있는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장병들의 가슴 아픈 현실은 지금도 병영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처한 장병을

생각할 때 드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누가 군상담을 해야 하는가? 군에서 상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한 상담이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어떤 심리치료방법이 더 적절하게 위기에 처한 장병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작지만 의미 있는 답을 찾고자 함이 이 글을 적게 된 동기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군상담에 대한 개인의 경험적 차원과 학문적 차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군상담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군상담의 정의, 군상담사 자격, 상담대상자, 군상담에 꼭 필요한 이론 등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군상담의 발전적 제안으로 몇 가지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군상담에 대한 오랜 경험과 이론에 대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광범위한 상담 영역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지엽적인 관점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후에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길 소망한다.

2. 군상담의 이해

1) 군상담의 정의

군상담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군상담 이론서들이 출판되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완일은 군상담이란 “군대장면에서 상담교육을 받은 상관이 부하와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조력활동을 통해 부하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는 과정”¹이라고 정의한다. 또 군상담은 “군장병과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군의 환경, 인적 자원 및 문화

의 독특성의 바탕 위에 개인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및 문제예방 능력을 확산하여 군을 21세기 인재육성의 핵심기관으로 정착시켜 군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²이라고 한다. 손영철은 군상담이란 “군대에서 상담의 기술을 가진 상담자가 효과적인 임무분담 후, 내담자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통해 내담자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또한 내담자가 앞으로 만날 다른 문제들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길러 주는 과정”³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군상담은 “전문적 상담교육을 받은 군상담전문가, 군상담실무자에 의해 내담자의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발견·자아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 촉진하는 과정”⁴이라고 한다.

위 정의들에 충분히 공감하며 동시에 군상담이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군상담의 정의라고 본다. 다만 현 군상담이 펼쳐지고 있는 군 현실을 볼 때 좀 더 현실적 차원에서의 더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에 처한 장병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자신의 문제를 노출해서 도움을 받아 위기의 상황을 넘기는 일만이 군상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군상담의 현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2) 군상담사

“상담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내담자를 위해 상담이 있는가? 아니다.

¹ 김완일, 『군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6), 16.

² 한국군상담학회, 『군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군상담학회, 2009), 21.

³ 손영철, 『군상담 이렇게 합니다』 (서울: 시그마프레스), 12.

⁴ 권일남, 임재호, 『군상담심리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2011), 23-24.

상담은 상담자를 위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담에 있어서 상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아니, 상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군상담도 마찬가지이다. 군상담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담사 자체가 가진 역량과 비중은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상담사는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김완일은 전문적 자질로 상담이론에 대한 이해, 상담방법에 대한 숙달, 상담경험 및 훈련 그리고 인간적 자질로 치료적 도구로서의 상담자, 본보기로서의 상담자라고 한다.⁵ 인간적 자질의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 원만한 성격과 인내심, 삶에 대한 열정과 부단한 노력⁶을 든다. 개인적 자질과 관련하여 인간에 대한 선의와 관심, 자신에 대한 각성, 용기, 창조적 태도, 끈기, 유머 감각⁷을 말하기도 한다. 또 권일남은 군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조건으로 1)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2) 어떤 유형의 내담자가 와도 응대할 준비, 3) 상담자 자신의 성격, 장단점,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이해, 4) 자신에 대해 과장, 자랑, 숨기지 않아야 하고, 5)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6)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 진심어린 애정, 인간존중 7) 원만한 성격과 인내심, 때론 단호한 자세, 8) 비밀준수의 의무, 9) 부대 내 내담자에 대한 인사상의 보호장치⁸ 등이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군상담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이와 더불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장병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대부분 자살을 시도한 이들은 재차

비슷한 일을 겪을 때나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자살을 재시도한다는 통계로 볼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누가 과연 군상담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3) 군상담 대상

권일남은 군상담 대상을 1) 군간부상담-장교, 부사관, 군무원, 2) 병사상담-병사 대상, 3) 군가족 상담-군가족(자녀 포함)⁹이라고 한다. 권일남의 분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병사의 문제를 단순히 병사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간부와 가족까지로 확대해서 본다는 것이다. 군상담사가 돌보아야 할 영역이 장병만이 아니고 간부와 가족까지라는 차원에서 군상담을 이해해야 한다. 자살을 시도한 비율이 가장 높은 일,이등병의 경우, 일차적으로 개인의 내면과 외면의 문제이지만, 병영생활이 주는 요소는 중요하다. 선임병과 간부와의 관계, 간부와 가족과의 관계가 ‘나비효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병사들은 적어도 서너 개 문제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찾아올 때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다. 한두 가지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면 자살시도는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 군상담구조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간부를 넘어 가족까지 상담할 수 있겠는가? 가능한 구조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 구조 안에 있으면서 군 구조를 뛰어넘어 가족까지 포괄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 조직이어야 한다.

⁵ 김완일, op. cit., 16-21.

⁶ Ibid., 21-22.

⁷ 한국군상담학회, op. cit., 28.

⁸ 권일남, 임재호, op. cit., 58-62.

⁹ Ibid., 24.

4) 군상담의 역사

역사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 있지만, 군상담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안남기는 최초의 군상담 기관이 박기영 목사이고,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상담기법, 집단상담, 의사소통기법을 가르쳤다고 한다.¹⁰ 이어서 1990년부터 시작된 군상담은 1) 사고예방과 관련된 예방상담, 2)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3) 심리검사를 활용한 진단을 통한 사고예방, 4) 건강한 시민육성을 위한 치유상담, 5) 상담활동의 중심에서 주도적 역할¹¹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역사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때 현 군상담은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적어도 그동안 군상담이 군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과 절차를 통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쌓인 역사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고민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현실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5) 군상담 이론

상담이론은 상담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 상담은 다양한 이론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명칭을 달리하는 심리치료법이 무려 400가지가 된다고 한다.¹² 그렇다면 군상담을 가장 잘 답을 수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적어도 군상담을 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발달심리학과 이상심리학

“감기와 사랑과 발달 이슈는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먼저

발달심리학 이해가 필요하다. “적어도 열 번 이상 발달심리학을 읽고 이상심리학을 공부하라”는 것처럼 정상발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상심리를 공부한다면 인간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달리할 수 있다.

(2) 대상관계이론과 가족치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 놓고”라는 노래가 나오면 장병들은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좀 더 그들의 마음에 다가서면 눈물 속에 숨겨진 진짜의 문제는 어머니 문제보다 아버지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어야 할 권력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군이라는 권력 구조에 노출되었을 때 그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를 밝혀 주는 것이 대상관계이론이고, 가족치료이다.

(3)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개인의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가 개인이 가진 문제를 들여다본 경험이 쌓이게 되면 마치 축구 재방송을 보듯이 심층의 문제를 예견하는 힘이 생긴다. 적어도 이런 경험이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군상담은 집단상담이 효과적이다.¹³ 짧은 시간에 많은 내담자를 만나 문제를 발견하고 도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¹⁴

(4) 예술심리치료학

예술치료의 영역에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사이코드라마 등이 속한다.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군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론이다.¹⁵

¹⁰ 안남기, “군종상담의 역사와 방향성 제언”, 『육군본부 군종감실 군종지』(2006), 109.

¹¹ Ibid., 110-125.

¹² 권석만,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서울:학지사, 2012), 4.

¹³ 한국군상담학회, 『군집단상담』(서울:한국군상담학회, 2009), 9-27.

¹⁴ 김상만, “전장에서 비전캠프”, 『육군본부 군종감실 군종지』(2005), 27-36.

(5) 체계이론과 전인건강

상담자가 처음 내담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 중 하나가 ‘자원체크’이다. 내담자가 가진 치료적 자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군상담은 치료적 자원이 풍부하다. 복무부적응 장병을 둘러싼 치료적 자원의 벽이 두텁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많다. 특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자원이 있다. 자원을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체계이론과 전인건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3. 발전적 제언

이제까지 군상담의 정의, 군상담사, 군상담의 대상, 군상담의 역사, 군상담의 이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군상담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냐고 묻는다면 주저할 수밖에 없다. 군상담은 경우에 따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장병의 입장에서 군상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는가? 누가 그런 병사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가 물어야 한다. 극단적 결단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누가 줄 수 있는가? 군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자원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군상담은 종교적이어야 한다. 군에 종교적 자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에 직면한 장병들에게 축복이다. 종교적 자원은 인간 내면보다 더 깊

숙한 문제까지 관여한다. 종교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간은 몸과 마음, 더 나아가 영적이기 때문이다. 군성직자는 가장 잘 갖추어진 조직이다. 이를 활용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군 안에 있는 성직자를 최대한 군상담의 영역에 나오도록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상담은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단 전문적인 상담훈련을 받은 군성직자가 해야 한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만약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문적인 상담훈련이 된 성직자가 해야 한다. 군성직을 수행하다가 전역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초기 군상담관을 선발할 때 군성직자 출신에게 특혜를 주었다. 하지만 최근 선발기준에는 어디에서도 종교적 영역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이 안타까움이고, 이 글의 핵심 요지이다.

¹⁵ Ibid., 36.

군선교신학 제11권 제10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논문공모 / 최우수작

장병 인권에 관한 군선교 전략과 과제

- 군종목사후보생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

The Strategies and Mission of the Military Evangelization on

Soldier Human Rights

- Centering around the Education on Human Rights for Chaplain Cadet -

■ 신종훈 Shin, Jong Hoon

■ 한일장신대학교 신대원

■ 군산성암교회 전도사



제1장 들어가며

1. 연구목적과 동향

‘징병’된 장병¹을 대상으로 보편적 인권²담론 차원에서 “과연 국방부(군종부)와 종교계(개신교)는 어떤 시각과 내용으로 주어진 책임성을 감당

¹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2항).

하고 있는가?”로부터 발현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04년 11월 발표한 『장병 기본권 확립방안』 연구결과 요약을 보면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³

“군은 장병 인권보장체계의 선진화가 본연의 임무수행 역량의 강화에 순기능적임을 인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되, 군의 기본가치/질서를 도외시한 주장에 대해서는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함.”

아울러 군 개혁, 군사문화의 민주화, 군에서의 인권보장체계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제기된 것 또한 사실이다.⁴ 그렇다면 우선 교단총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이러한 현안을 두고 어떤 고민과 정책적 내용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하지만 인권사각지대에 노출된 군문화⁵의 현주소를 다각적으로 반추해 보면 일련의 군부대 총기사고, 구타, 자살, 성폭행, 언어폭력, 인격권 무시, 사생활 침해, 탈영, 집단

² 법률용어사전(2007)에서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한편 안경환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기본권과 인권은 비슷한 말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양자는 개념상 구분된다. 기본권이란 한 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반면 인권이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안경환, 『법과 사회와 인권』 (서울: 돌베개출판사, 2009), 105.

³ 이계수의 2004년 연구논문인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161을 참고함.

⁴ Ibid., 162.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이 사법개혁위원회를 거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던 2005년 상반기의 어느 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등 군 고위지휘관 70여 명은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개혁은 인권보장과 지휘권 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따돌림 등의 사건사고는 이미 병사와 병사 사이, 병사와 간부 사이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참극(慘劇)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치료와 회복을 돕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구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여 대증요법이 아닌 지속가능한 선제적 예방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난제(難題)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라도 군종부 군종목사후보생(이하 후보생) 교육은 이전과는 다른 ‘병영밀착형’ 군선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즉 임관 전 6년 동안 교단총회 혹은 연합회는 후보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을 실무적 차원에서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인권의 보편성 논의와 기대효과와 유의함을 인식하여 시행령·규칙 및 정책적 개선대책 완비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상의 기본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기존 연구업적을 토대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후보생들의 인권교육을 거시적·미시적 담론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예컨대 성서의 가르침과 사회과학적 인식차원에서 인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초하에서 장병들의 복무 부적응 실태와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한 후, 후보생들의 임관 이전 단계에서 각 교단총회, 출신대학교, 연합회가 지속 가능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입체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론(모델)을 제시했다. 끝으로 21세기 대한민국 군선교 패러다임의 전환과 전략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⁵ 군대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조직화된 폭력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폭력적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급적 질서로 조직되고 엄격한 규율로 통제되는 곳이 군대이다. 김용현 공저 외, 『군대윤리』 (서울: 백산출판사, 2011), 67. 하지만 문제는 평시 상황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대한민국 군선교에 관련된 학위논문 발표는 1982년부터 이루어졌고, 1984-1989년에도 논문이 몇 편 발표되었다. 그리고 1991-2012년까지 매년 서너 편씩 꾸준히 한국연구재단에 등재가 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까지 학위논문 총 편수는 41 편(석사 36편/박사 5편)에 불과하다.⁶ 물론 국내학술기사, 월간잡지, 군선교신문 등을 통한 기고문 형식의 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1991년대 이후부터 논문의 주제는 신학적 해설에서 종합적인 실천연구로 외연을 확대하여 변모를 거듭하였다.

한편 공식적으로 발표한 「군선교신학」 제1-10권 소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향후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과 대책이 실천적 과제로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장병들의 건전한 병영생활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가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생명윤리, 자살, 이단종파, 양심적 병역거부자, 성적 소수자, 양성평등에 관한 사회적 이슈에 기민하게 응답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종목사 임관 이전 단계인 후보생 시절, 즉 장병 인권에 대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인권교육을 교단총회, 연합회, 출신대학교 차원에서 통합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컨대 후보생들의 인권감수성 교육, 장병 인권침해 예방법,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군종부가 대처할 수 있는 협력적 기동력과 신속한 대응방식 및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기반 교육·정책은 군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직결되는 주제인 동시에 군 무형전력인 사기와 군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장병들의 인권침해 사례와 피해자의 수가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면 군종목사의 전문성과 인권감수성 함양은 임관 전 단계인 후보생 때부터 집중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선교 전략차원에서

⁶ 국회도서관 사이트, <<http://dl.nanet.go.kr/SearchList.do>>.

군종목사후보생 인권교육 연구논문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 연구범위와 기대효과

본 연구의 시기적 고찰 범위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노무현)와 실용정부(이명박)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 기조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⁷ 이를테면 국가주도형 모델과 시장경 제주도형 모델은 곧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양분된다. 이는 중앙부처인 국방부·여성복지부 정책운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며, 그 영향은 국민들의 인권감수성까지도 자극시킬 수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공간적 연구범위는 11개 각 교단총회, 11개 신학대학교, 연합회로 국한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후보생의 인권교육 이론과 실무 프로그램 제반을 모색하되, 각 교단총회와 연합회가 외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임상목회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 인권이란 거대담론을 신학적 관념론과 사회과학적 정책론으로 구분하여 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기되는 천부인권사상과 근대화 이후 법제도적 인권 규범화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적용시킬 것인가를 검토하면서, 특히 보편적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정서가 고스란히 반영된 병영문화를 인권이란 대승적 방어기제 관점에서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분단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대한민국 국방의무가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군이란 특수성 때문에 야기된 장병 인권침해 사례는 속수무책으로 고착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사고를 미리부터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화두로서 인권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임관 전 후보생들이 새로운 교육모델을 체득하여 문제의 해법을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실무중심의 경험과 훈련은 곧 군복음화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무례한 복음이 아닌 쌍방향적이며 전 인격적인 회복의 시금석으로 진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집단지성(we-think)이란 용어가 일반대중 속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복음화란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영역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군선교의 역동성을 제고(提高)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방성을 전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향후 사안에 따라 기민하게 선교전략을 구상·전개함에 있어 일정 부분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2장 인권의 개념과 이해

1. 성서적 맥락에서 신학의 근거

‘인권’이란 용어와 문법은 근대적 개념이다.⁸ 이는 계급투쟁과 민족문제 등과 같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향거했던 민중들의 몸부림 속에서 발현된 성과물이다. 따라서 성서에 비취진 인권의 흔적을 조명할 때 근대적 가치를 가지고 고대 작품에서 읽어내는 역행적 관점의 도치를 감안해야 한다. 인권개념은 구약성서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원칙들이 교회, 이슬람교 사원, 도시국가 등 어느 곳을 중심으로 표현되었건 간에 처음에는 의무라는 형식으로 제시되었다가 훗날 권리의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이

⁷ 외교·통일·국방 분야 및 경제·사회 분야에 있어 노무현 정부 어젠다는 대체적으로 타협형인 반면, 이명박 정부는 갈등형으로 분석되었다. 역사문제연구소, “노무현, 이명박의 어젠다 정치: 갈등과 통합의 딜레마”, 『역사비평』 봄호 (서울: 역사비평사, 2012), 84.

를테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권으로 발전했으며, ‘훔치지 말라’는 계명은 재산권으로 진화한 것이다.⁹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여 그분의 형상(창 1:26-27, 5:1-3)에 따라 창조됨을 강조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망의 권세와 죄로 인해 제한된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인권은 사람 간의 정의로운 삶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권리이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¹⁰

한편 구약의 토라(Thora) 안에는 계명과 율법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계약법전과 신명기는 십계명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민자의 권리, 경제적 착취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문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위협에 처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령을 제정하고 있으며(신 15:11),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기본적 생존권도 변호한다(신 24:19). 아울러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사회적 외침과 저항으로써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

⁸ 서양에서 인권 개념은 인간의 권리가 자연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당하게 가지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발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권리를 자연권(natural right)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연권 대신 천부인권으로 널리 쓰인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천부인권과 관련하여 절대자로서 자연이 법을 규정한다고 이해했지만, 근대 초기 서유럽의 철학자들은 절대자를 기독교의 신과 동일시했고, 한자 문화권의 학자들은 절대자를 하늘과 동일시했다. 최현, 『인권』 (서울: 책세상, 2008), 13.

⁹ 미셸린 이사이,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역 (서울: 길, 2008), 58.

¹⁰ 김형민,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서울: 복코리아, 2011), 79. 한편 차정식 교수는 “성서적 인권상은 바로 그 ‘무자비함’과 ‘무궁무진함’ 사이에 명명하면서 신학적 딜레마의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거나 겸손히 간청되는 것이지 스스로 당연한 권리인 양 주장하거나 쟁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그의 저서 『하나님 나라의 향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117에서 언급하였다.

는 역할을 묘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은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한 방법으로 강탈한 아합 왕에 대한 엘리야의 고발이다(왕상 21장). 또한 아모스는 여러 민족을 향해 선포했던 메시지 가운데 전쟁 행위 자체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암 1:3 이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다른 민족과 함께 해방시킨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암 9:7). 따라서 선택적 민족의 우월감을 비판하면서 고대 유대교 전통의 평등성의 한 측면을 부각시켰다.¹¹ 일부 유대교 랍비들은 이런 점을 들어 “이스라엘이 명예나 특권 때문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응답하곤 한다.¹²

아울러 예수는 산상설교를 통해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마 5:17-18). 이는 예수가 전통 유대교의 계명과 율법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올바른 가치 지향점을 찾는 것을 자신의 숙명적 사명으로 보았던 것이다. 예수는 당시 유대교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으며,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¹³ 그래서 예수는 아래와 같이 설교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마 22:37-39).

예수에게 인권선언의 백미이자 ‘기독교적 휴머니즘’이란 꼬리표를 붙여 줄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다.

¹¹ 고대 유대의 법은 함무라비 법전과는 다르게 귀족과 평민 사이에 법적 차별성을 두지 않았다. 당대의 유대법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진전시켜 유대인과 이방인의 권리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성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정과 법을 실천하면 살 것이라고 명시한다(레 18:5).

¹² 미셸린 이사이,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역 (서울: 길, 2008), 59.

¹³ Ibid., 81.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 2:27-28).

예수의 이 선언은 안식을 유대인의 종교적·민족적 정체성의 표지로 삼았던 당시의 사정을 감안할 때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어록은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예수가 응수하면서 제시한 결론구이다.¹⁴ 예수는 지나친 부의 축적과 권력자들의 횡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막 10:25).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 5:39).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애정과 저항은 페루의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스(Gustavo Gutierrez)에서 볼 수 있듯 그리스도교 사상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

결국 성서적으로 볼 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다. 또한 인간을 위한 인권의 거대담론과 근거는 인간의 본성과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신과 반역의 굴레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론적 용서와 돌봄이다.

¹⁴ 차정식, 『하나님 나라의 향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122.

2.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인권의 이해

사회과학자는 도덕적·윤리적 개념인 인권을 단지 법률가의 전문적 영역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국제정치학은 국익과 국가경쟁력에만 관심을 갖는 현실주의적 이론담론에 몰두하고 있었다. 일부는 민족분쟁, 사회 불평등, 집단학살, 젠더, 기후문제 등이 발생하고 표면화가 되면서 인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¹⁵ 그러나 이 또한 변두리 주제일 뿐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배담론은 아닌 의제라고 보았다. 그 결과 사회과학은 인권을 대체적으로 무시해 왔던 게 사실이다. 반면 ‘대안 세계화’를 추구하는 국제 네트워크 사회운동세력은 정치적·군사적 담론의 확대안보 개념에 반대하여 ‘인간주권’이라고 하는 휴머니즘 개념을 강화시켜 나갔다. ‘인간주권’ 개념은 1994년 UNDP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고, 이후 이 개념은 UN의 여타 조직(UNICEF, FAO, WHO, UNHCR)에 의해 채택되었다.

최근에는 사회학과 인류학이 인권 연구에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지구화된 경제가 인권 보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점차 많은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초국적 사회운동으로서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¹⁶ 인권 개념이 사회과학에 있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 처음으

¹⁵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을 위협하는 국가안보개념 대(對) 인간주권 및 사회경제권리 차원에서 볼 때, 대안 세계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세력은 정치적·군사적 담론의 확대안보 개념을 반대하고, ‘인간주권’이라는 규범적 개념을 강화하는 것을 주장한다. ‘인간주권’ 개념은 1994년 UNDP에 의해서 최초로 공식화되었다. 이후 이 개념은 UN의 여타 조직(UNICEF, FAO, WHO, UNHCR)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인간주권은 군사적 개입 혹은 물리적 보호에 의해서가 아닌 법치국가, 인권보호, 참여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만 작동한다. 심창학·강수택, 『사회정책과 인권: 인권기반 사회정책의 관점과 영역』 (서울: 오름출판사, 2011), 31-32.

¹⁶ 마이클 프리먼, 『인권이론과 실천』, 김철효 역 (서울: 아르케, 2006), 23.

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미국인류학회(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집행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 초안 당시 UN인권위원회의 인권에 관한 성명서를 제출하면서부터다.¹⁷ 하지만 인권에 대한 과학적 사유 체계가 빈약했던 과학자 집단에서 인권이란 문법과 방법론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언급할 자격조차 없었던 게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개념상의 이해와 논의구조의 간격을 법률이 좁혀 주었다. 비록 법률은 원칙적이고 규범적이지만 실제적인 측면도 내재되어 있다. 또한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석되며,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다. 이는 인권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행위들을 사회과학 내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사회학은 법률 연구를 통해 인권에 관한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회과학 분야이다.¹⁸ 철학과 법학이라는 높은 곳에 있는 인권 개념은 해석적 사회과학을 통해 그 권리의 보호가 실제로 필요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니체(Nietzsche)는 윤리적 이상주의자들을 “현실로부터 떠나는 이민”이라고 표현했다. 인권의 사회과학이 해야 할 일은 인권지지자들을 현실로 돌려보내는 것이다.¹⁹

제3장 장병 인권실태와 사례

1. 복무 부적응 실태

〈표1〉 복무 부적응 집단의 군 생활 어려움 인식 정도²⁰

척도	부적응 집단		적응 집단		전 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6	5.8	114	13.6	120	12.8
2. 거의 없다	2	1.9	157	18.8	159	16.9
3. 별로 없다	10	9.7	226	27.0	236	25.1
4. 약간 있다	38	36.9	261	31.2	299	31.8
5. 상당히 있다	29	28.2	63	7.5	92	9.8
6. 매우 많다	18	17.5	14	1.7	32	3.4
전체	103	100.0	83.5	99.8	938	99.8

〈표1〉에서와 같이 조사 대상자의 45.0%는 병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3.2%는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장병 10명 중 1명이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방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¹⁷ Ibid., 112.

¹⁸ Ibid., 112.

¹⁹ Ibid., 138.

²⁰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40.

〈표2〉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²¹

	부적응 집단 (N=103)	적응 집단 (N=837)	전 체 (N=940)
부당명령 및 처벌	29	199	228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47	290	337
열악한 근무환경	18	265	283
사생활 보장 어려움	17	153	170
보직 불만족	15	60	75
고된 훈련	30	124	154
선임병과의 갈등	49	242	291
비자발적 입대	10	153	163
가정문제	12	117	129
여자친구문제	9	154	163
제대 후 진로 부담	22	344	366
성격문제	16	166	182
많은 암기 및 교육	7	63	70
성문제	4	22	26
총계	285	2,352	2,637

〈표2〉의 원인은 선임병을 ‘갑’으로 후임병을 ‘을’로 인식한 후, 계급적 권위와 기득권을 이용하여 구타, 성폭력, 언어폭력 등을 합법화시킨 데 있다. 악순환의 지속성은 곧 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야기되어, 결국 심리적·신체적 부적응 증세를 촉발시켜 제대 후 진로 부담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2. 인권침해 사례

1) 구타와 폭력

「한겨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플러스에 맡겨 2005

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주요 대학 21곳 1-5년차 예비역 5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여론조사 결과, 조사 시점 기준 5년 내 군 전역자의 60%가 군에서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병영 안 인권에 대해 부족하다 49.8%, 적당하다 34.2%, 충분하다 15.8%로 응답했고, 특히 ‘부족하다’로 응답한 49.8% 가운데 14.8%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예비역 1년차의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가 34.1%여서 변화의 조짐을 엿볼 수 있다.²²

2)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군복무를 힘들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이다. 2008년 국방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병들은 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유형으로 언어폭력(38.64%), 구타 및 가혹행위(17.02%), 사생활침해(14.47%), 차별(12.93%)을 들고 있으나 언어폭력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12.56%, ‘전혀 없다’ 82.84% 등으로 언어폭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71%가 언어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자주 있다’고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답변을 신뢰할 때 언어폭력이 여러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폭력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은 2.09%, ‘다소 심각’하다는 의견은 12.56%로 나타난다.²³

3) 성폭력

2008년 국방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매우 자주 있다’ 2.14%, ‘자주 있다’ 12.20%로 14.34%가 성

²¹ Ibid., 52

²² 송기춘,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민주법학」 제42호(2010), 248.

²³ Ibid., 250, 재인용.

추행/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또한 이를 목격한 것은 ‘매우 자주 있다’ 1.91%, ‘자주 있다’ 10.38%이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5.4%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를 듣거나 본 경우 전체의 24.7%에 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가 ‘듣거나 본’ 경우를 묻는 반면 국방연구원의 연구는 ‘목적’ 한 경우를 묻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성추행/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두 연구 사이의 성폭력 경험 여부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²⁴

제4장 군종목사후보생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의 교육목표

인권교육의 교육방법론은 군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에 따른 교육적 목표에 밀접한 연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 목표로 함축되어 있다. 첫째, 군대라는 특수성과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라는 법·제도적 지적 토대를 형성한다. 인권교육은 후보생뿐만 아니라 장병과 간부 간의 쌍방향식 기본 교육을 통해 숙지해야 할 최소한의 지식 전수인 것이다. 둘째, 인권의 감수성(sense of human rights)을 한층 고조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 주지 못하는 의식화교육 수준이라면 용두사미에 불과한 반쪽짜리 성공사례일 뿐이다. 인권교육의 목표는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있으며, 동시에 후보생 및 병사와 간부가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실효성 여부는 지식과 정보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권교육의 방법론은 위의 두 가지 목표를 가장 효과적이며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본다.

2. 인권교육의 방법론

인권교육의 지적·법률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방법론과 다르지 않다. 다만 기타 학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천력과 결단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폐쇄된 강의실에서 강의하기보다 조금은 다른 방법론을 제시할 때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습자의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실무 체험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래는 그러한 몇 가지 방법론을 기초 단계부터 다지기 단계까지 제시하였다.

1) 인권교재 개발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인권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우선 인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구성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적용할 것인지? 또한 군선교 차원에서 장병 인권에 관한 급선무 혹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이 인권교육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렇다면 후보생의 인권교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첫째, 헌법상 기본적 권리, 군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 장병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등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예컨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군인복무기본법,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

²⁴ Ibid., 251, 재인용.

요가 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교단 차원의 인권활동, 비정부기구(NGO)의 군 인권 보고서를 수집한 후, 후보생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협조할 것인가를 이전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이러한 인권보고서 자료를 공간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

셋째, 성서적 맥락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한층 부각시켜 인권이라고 하는 신학적 인권교재를 제작한다. 예컨대 신구약 및 기타 문헌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재가 요구된다.

2) 시청각교육의 개발과 활성화

인권에 관한 대중(독립)영화, 미술작품, 음악, 역할연극, 뮤지컬을 권장하여 학습자의 오감을 자극한다면 장병 인권교육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시청각기자재가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화된 다양한 콘텐츠 교육자료 수집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홍보원, 군인권센터, 국회도서관, 대학교 부설기관, 기타 연구소, 대중매체(종편 프로그램) 등에서 열람·복사·대여·시청·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즉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3) 이해관계자와의 만남 강화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공존한다. 특히 군 조직 특성상 상명하복(上命下服) 식 수직관계에서 벌어진 반복된 사건사고는 재발방지 대책 차원에서 군 수뇌부 및 지휘관이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권교육을 군종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한다고 가정할 때, 후보생들은 이론적 신학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실천적 신학 실무체계

로 전환하여 매뉴얼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역장병 혹은 예비역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인권 감수성을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때문에 지속적인 만남으로 그들의 낮은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후보생들의 임관 시기가 다가올수록 최대한 실무 중심의 ‘당사자 인터뷰’ 및 ‘외부특강’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실무 중심의 ‘융합적’ 임상교육 모델 찾기

현장의 목소리와 고충을 최대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는 전담 실무자 혹은 사회단체 활동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생 실무교육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밀폐된 강의실이 아닌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기존의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실무자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이는 장병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공유하여 정책적 논의구조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테면 임상목회교육 및 임상법학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상호 교차분석을 실시한 후, 최근 후보생 실무교육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우리 식만의 융합적’ 임상교육 모델을 제시하여 보급해야 한다.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후보생이 군종목사가 되어 군부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당사자의 심정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탁이나 위임이라는 차선책으로 문제의 본질을 방임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군종목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이처럼 철저한 후보생 실무교육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현장 중심의 모의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다음에서 살펴볼 ‘임상목회교육’과 ‘임상법학교육’을 융합시켜 집대성할 수 있다고 본다.

(1)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1953년 ‘목회임상교육전국협의회’ (National Conference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에서는 CP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CPE란 신학도나 목사로 하여금 병원, 교도소, 또는 다른 임상기관과 같은 적절한 센터에서 교차 전문적인 지도자와 협력해서 자격을 갖춘 원목감독의 개인적인 감독 아래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패스트럴 케어(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를 학습하는 기회이다.”²⁵

임상목회교육(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은 목회실천을 위한 전문성을 훈련하는 것이다.²⁶ 예컨대 그 목적은 목사, 신학생,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이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 있는 인간문서’ (질병, 사고, 위기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와 만나서 그들을 섬기며 돌보는 가운데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고, 영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²⁷ 즉 목회실천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상목회교육은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미국은 임상목회교육을 한 차례 이상 이수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성립된다. 미국임상목회교육협회(ACPE)가 운영하는 교육과정만 연간 7,000개 정도가 된다.²⁸ 국내는 2001년 협회가 발족했고, 서울세브란

스병원에서 처음으로 임상목회교육 과정을 시작해 현재는 고려대학병원의 안암병원 한은자 목사, 대구 동산의료원 장황호 목사, 충남대병원 장경희 목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신학교 중에서 임상목회교육을 개설한 곳은 연세대의 유영권 교수, 이화여대, 한신대의 정태기 교수, 감신대의 이기춘 교수, 장신대의 오성춘 교수, 서울신학대, 천주교회의 미리암 신부 등이다. 그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은 세브란스병원에서 1단위(400시간) 프로그램을 필수 교과목으로 정하여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 임상법학교육(Clinical Legal Education)

하버드 로스쿨이 리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중시하는 교육의 중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률전문가로서의 가능과 가치관, 윤리관을 확실히 몸에 익히도록 한다. 법의 이론 및 원칙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면의 습득도 중시한다. 예를 들면 교용 프로그램과 같은 과정에서는 현실의 법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법률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정책론으로 나타난다. 시스템 내부에 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법률 지식이 단지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지식을 터득하게 하는 방법인데, 예컨대 검찰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경우라면 학생을 직접 검찰청에 파견하여 검사의 역할을 보고 듣게 하는 것이다. 바른 교육목표, 적절한 양의 일, 질 좋은 감독에 의해 순수 학문적인 분야와는 다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²⁹

한편 임상법학의 다양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대략 10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장은 후보생 실무교육의 타당성과 적합성

²⁵ 유영권 외 공저, 『한국 임상목회교육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40에서 재인용.

²⁶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 교육방법론으로서 논의되는 임상법학이 인권법에서는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실천적 방법론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차원에서 임상법학이 활용되었다. 법학교육에서 임상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는 미국으로서, 임상법학을 ‘클리니컬 리걸 에듀케이션’ (Clinical Legal Education)이라고 한다.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파주: 한울출판사, 2012), 32-33.

²⁷ 유영권 외 공저, Ibid., 12.

²⁸ 황세원, “강대상 꿈꾸는 자, 병상을 품어라”, 『국민일보』 2010. 10. 2, 21면.

²⁹ 박찬운 교수의 2007년 연구논문인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8을 참고함.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5가지로 간추려 적용해 보았다.

A 유형: 학내에 법률사무소(legal clinic)를 개설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정 종류의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건을 수입하여 소송대리까지 담당한다. 학생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임상교수의 감독하에 직접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하고 사건 수입에도 관여하는 등 전반적인 법률 사무를 익힌다.

B 유형: 모의재판

C 유형: 변호사 업무의 기본 기능을(인터뷰, 법률상담, 증언 녹취, 교섭 등)을 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모의 연습한다.

D 유형: 특정 분야의 이론 과목에서 현실의 사건을 소재로 하는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거래 내용의 교섭 등을 모의 훈련케 한다.

E 유형: NGO 등 공익단체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실습한다.

미국의 유명 로스쿨은 통상 위의 과정 중 하나 내지 둘에 특징을 가지면서 법률 실무교육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컨대 하버드 로스쿨은 첫 번째 유형의 실무교육에 강한데, 그곳은 보스턴의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로스쿨 직영의 법률사무소를 설치하여 일반 민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인권교육 구체화 작업

국방부가 실시한 2012년도 장병 종교전수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63만여 명의 장병 중 33만 명(52%)이 종교를 가졌으며, 그중에 기독교는 약 18만여 명(55.4%)인 것으로 발표되었다.³⁰ 아울러 군선교 현황을 보면, 한국교회는 군인교회 1,004개, 군종목사 267명, 교역자 약 370명(전담자), 군목 파송 교단 11개, 회원교회 약 4,000개, 연간 군선교비 약 150억 원 등 막대

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재원을 투입시켰다. 하지만 2008년 기준 한 해에만 자살 75명, 군사고로 인한 사망 82명,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사가 무려 1천여 명에 이르며 해마다 1,000여 명의 장병이 탈영하였다.³¹ 이 부분에서 예상(통합 측) 군농어촌선교부 서광욱 목사는 군선교의 현실과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일회성으로 끝내는 행사 중심의 진중세례식은 자칫 복음이 값싼 은혜로 폄하될 수 있다. 아울러 실적위주, 또는 전시성 행사를 지양(止揚)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선한 행위가 진정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선교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군종목사들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표적인 군선교단체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³²

따라서 인권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학습 및 다양한 사례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초교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역할³³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특별부설기구 사역 강화 차원에서 한국군상담심리코칭학회(생명존중센터) 및 상담센터운영은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따른 고충을 조금

³⁰ 임성국, “국방부 장병 종교 전수조사, 기독교인 18만여 명”, 「기독교포」 2013. 1. 4. 인터넷판.

³¹ 정원철, “병사의 군 부적응 및 적응력 향상 관련 국내 연구동향의 개관”, 「청소년학연구」 제18권(2011), 23.

³² 박재찬, “낮은 자세로 현장 누비며 소통에 힘쓸 터”, 「국민일보」 2013. 2. 13. 30면.

³³ 제8회 후보생수련회, 16년차 후보생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1개 각 교단(기감, 기성, 기침, 기하, 고신, 대신, 백석, 통합, 합동, 예성, 기장)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기 혹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체교육과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각 교단별 군종사관후보생 교육사업 및 일반사업 예산은 통합, 기감, 고신, 기성만 책정되어 있다. 국방부는 임관 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다.

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샤인(선한 사마리아인) 사역 역시 좋은 군사 만들기과 건강한 병영 만들기(사고예방, 악습관 행 끊기 등)를 위해 장병들의 고질적인 전근대적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프로그램이다.³⁴ 이러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후보생들이 입관 전부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물론 각 노회 및 개교회가 군종목사후보생들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식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³⁵

둘째, 각 교단 총회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부분 교단 총회에는 인권부서 내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인권부서와 군선교부는 군복음화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로 후보생을 양육해야 한다. 물론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실무자가 있기도 하지만 비전문가들도 책임자 혹은 실무자로 배치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교단총회는 인권과 관련한 전문신학자, 평신도 전문가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³⁶ 한편 총회장이나 인권위원장이 주요한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성명서나 담화문을 발표한다면 그것 역시 인권교육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셋째, 각 교단총회는 출신 대학교에 따라서 본교의 교과목 중 개론(총론) 차원에서 문화인류학, 인권법, 사회학, 복지학, 헌법, 상담학, 심리학, 윤리학,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교육 등을 필히 이수하거나 복수전공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의 지향하는 가치관을 신학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사회과학

³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서울: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2), 9.

³⁵ 2013년 한국군상담심리코칭학회의 ‘군장병심리상담사’ 수업료는 〈군장병심리상담사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1급(일반 100만 원/연신원 40만 원), 2급(일반 80만 원/연신원 3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³⁶ 정종훈, 『기독교 사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62.

이라고 하는 구조주의를 두루 섭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교단총회와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이해와 결단이 요구된다.

제5장 나가며: 향후 과제

장병 인권침해 및 부적응자를 둘러싼 이슈와 갈등, 대립의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이다. 더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인권이란 보편적 기준을 설정하여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장병 인권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인권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전체적으로 그 외연을 확장시켜야 한다. 확장성과 발전성은 어느 정부가 출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안 채택의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안건 상정조차 무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본고는 단순논법으로 성급하게 접근할 수 없는 주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결책이 될 만한 모든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 놓고 전문분야의 학자들을 통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씩 제시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끝으로, 아래의 과제들은 향후 군선교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인식변화(인권 감수성) 시도, 개방된 협력적 네트워크 혹은 거버넌스 구축, 실무형 임상교육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장병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군 생활이 편할수록 군 기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죽도록 고생해야 한다”는 국방의무 강조론 혹은 “과거에 비해 현재의 군 생활이 좋아졌다”는 식

의 상대적 개선론이 그것이다. 결코 장병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닌 권리 보장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그렇다면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총괄적 측면에서 운용할 것이며, 또한 각론 차원에서 인권교육과 홍보를 대중적 눈높이에 맞춰 무엇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둘째, 협력적 네트워크 시대에서 후보생을 둘러싼 주변 조직체인 각 교단총회, 연합회, 군종부, 시민사회단체, 부대인근 지역교회 등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행태는 통합과 공생을 통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며, 동시에 각기 조직체가 그동안 숙성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해법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다. 아울러 재정지원과 후원에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선행되지 않고 각개전투 식으로 장병 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신뢰 프로세스 구축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후보생 교육뿐만 아니라 장병들 돌봄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항구적 네트워크 재정비 및 지속가능한 개방적 만남의 정례화 그리고 어떤 어젠더 세팅(*agenda setting*: 의제설정)과 내용으로 협력(협조)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임상목회교육과 임상법학교육의 강점을 최대한 접목시킨 새로운 임상 프로그램 마련으로 후보생들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실무경험이 있는 군인, 교수, 의사, 활동가를 주축으로 TF팀과 한국군선교연구소(한국교회 군선교 싱크뱅크)가 공동으로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상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군종목사후보생(71기)수련회 설문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전체 응답자 13명 중 6명은 선발 후 6년간의 교육으로 실무 중심인 ‘군부대 실습체험, 사병생활체험, 자살방지 교육, 전인격심층상담 교육, 비폭

력운동 및 회복적 정의 교육’ 등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지평은 연합회의 기본 핵심사업 및 방향성에 부합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군선교신학 제11권 제10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논문공모 / 우수작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그리고 진중서약식

A Study of Mass Conversion,
Mass Baptism and Mass Oath in Military

■ 강찬영 Kang, Chan Young

-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Th. M.)
- 육군 제53사단 총렬교회 담임목사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군선교 현장에서 세례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군선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진중세례’ 일 것이다. 하지만 진중세례운동이 가지고 있는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종종 심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다소 불편하지만 피해 갈 수 없는 물음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 군에서 진행되는 모든 세례에 대한 것은 아니다. 각 부대의 군인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는다. 대부분이 단기간에 훈련소에서 시행되는 대대적인 집단세례에 대한 비판이다. 그렇다고 세례의 유효성에 대한 시비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세례든 물을 수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면 이는 유

효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고 했던가? 유효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군선교 현장의 현실과 논리가 있다. 하지만 다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선교 방법론으로서의 진중세례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단기간에 진행되는 세례의 정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물음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가 지금까지 군선교를 위한 세례운동에 헌신한 사역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힌다. 오히려 그러한 노력과 고민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사실 집단개종(세례)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선교현장에서는 이를 하나의 방법론, 아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논리에서 군선교 현장에서의 진중세례를 집단개종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면적 유사성의 이면에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교회사에 나타난 집단개종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클로비스(Clovis)의 개종과 19세기 이후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달리트(Dalit)¹ 집단개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중세례 문제를 살피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진중서약식과 이와 연계된 세례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한국군 최초의 합동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보병 21사단 66연대에

¹ 인도 신분제도의 불가촉천민(untouchable)을 가리키는 말.

서 시행되었다. 이때 당시 연대장이었던 유정목 대령이 연대군목이었던 이상강 군종목사에게 장병 153명과 함께 세례를 받아 각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게 되었다. 곧이어 1971년 11월 25일에 보병 26사단에서 1,460명의 합동세례식이 거행되고, 12월 5일에 5사단의 장병 1,005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듬해 1972년 3월 9일에는 28사단 81연대에서 장교 47명을 포함하여 총 1,009명이 세례를 받았고, 4월 25일에는 20사단에서 3,478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2차 진중세례식 운동은 1990년 논산훈련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교육사령관이던 김진영 중장에 의해 발의되고 주도되었으며 군신앙, 전력강화를 위해 세례운동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사재로 마련한 십자가 목걸이 10만 개를 제작하여 봉헌함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² 제2차 진중세례운동의 결과 1992년에는 85,000명, 1993년에는 128,000명, 1994년에는 130,000명, 1995년에는 186,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1997년 4월 19일에는 한 번에 7,2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 기네스 기록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전무후무한 단일 최대인원 기록은 물론이고, 한국군선교의 세례운동은 지금도 반복되기 어려운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다.³ 이는 군선교의 명확한 전략과 군사역자들의 헌신, 한국교회의 물적·영적 지원을 통해 이룩해낸 놀라운 결과이다.

² 주연중,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군선교신학』1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3), 200-204.

³ 2012년 연무대군인교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연병장에서 진행된 진중세례식에서는 창군 이래 최대 인원인 9,014명이 세례식에 참여했고, 70%가 세례를 받았다. 여기에는 한국기독교(원장: 김덕은)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 세례식에 참석한 훈련병의 인원수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최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고, 나아가서는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함이었다. “연무대군인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합동세례식 참관기”, 『기독교공보』(서울) 2851호 2012. 5. 26.

사도행전의 역사에 비견될 만한 진중세례운동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선교역사에 등장하는 집단개종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⁴ 선교학자 맥가브란(McGavran)에 의하면, 집단개종이란 선교역사에 자주 등장했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회심의 중심을 이루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야 한다.⁵ 사실 이런 관점에서 진중세례를 이해하게 되면,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고 적절한 설명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정확한 평가인가에 대해 비판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⁶

물론 표면적으로는 둘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

⁴ 장승권, “세례를 통한 군선교 전략연구: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2003), 68-72. 정두영, “종족운동(집단개종, People Movement)과 군선교” 『군선교신학』2(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⁵ 도널드 맥가브란, 『교회성장학』, 고원용 역 (대구: 보문출판사, 1993), 431-433. 맥가브란은 그의 다른 책 『하나님의 선교전략』에서 이러한 집단개종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 종족운동은 기독교운동과 더불어 수십만 개의 마을들에 뿌리박고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기독교회를 생성한다. 둘째로 종족운동은 자연스럽게 토착화하는 이점이 있다. 셋째, 종족운동에서 ‘교회의 자발적인 팽창’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넷째, 종족운동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종족운동은 기독교인이 되는 건전한 본보기를 마련해 준다. 도널드 맥가브란, 『하나님의 선교전략』,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20-123.

⁶ 남송현은 진중세례운동을 집단개종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비판을 전개한다. 특히 그는 진중세례식에 참석했던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첫째, 육군에 복무한 사병들은 훈련소에서 실시되는 집단세례가 신앙과 관련 없이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육군에 복무한 사병들은 훈련소에서 실시되는 집단세례가 전략적인 선교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진중세례식은 성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송현, “Vision 2020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군선교의 선교학적 분석: 입대 전 신앙인으로 2000년 이후 육군에 복무한 사병들을 대상으로”(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7).

나는 유사성만으로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 집단개종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러한 문제 분석을 위해 클로비스의 회심과 집단개종, 인도의 달리트 집단개종운동을 진중세례식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클로비스의 개종과 진중세례

1) 클로비스의 개종

클로비스(Clovis)는 5세기 말경에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다. 당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옛 서로마 지역에 권력의 공백상태가 전개되고 있었다. 동고트족, 서고트족, 반달족, 롬바르드족 등의 게르만족이 옛 서로마의 영토를 분할했으며,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리아 지역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크족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클로비스는 기독교인이었던 부르고뉴의 공주 클로틸다(Clotilda)와 결혼한다. 그는 기독교 공주와 결혼을 했으나 알라마니족과의 돌비아크 전투에서 크게 패할 위험에 빠지기까지 이교신앙을 고집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기독교만 믿겠다고 맹세하게 된다.⁷ 이 전투에서 승리한 클로비스는 496년 크리스마스에 자신이 맹세한 대로 3,000명의 전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의 개종은 백성들의 집단개종

으로 이어진다.⁸

그들의 회심이 진지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클로비스가 공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일은 교회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현대의 프랑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프랑크인들은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이 지역은 스페인에 정착한 고트족을 위한 선교기지가 되었다. 이교도의 국가였던 프랑크 왕국이 로마 교회의 영향 아래 있는 국가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개종한 클로비스는 자신의 왕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전통보다는 로마와의 공통성을 강조했다. 그는 프랑크 부족을 통치하면서 갈리아-로마 귀족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프랑크족의 다른 분파 및 게르만 왕국들이 차지하고 있던 갈리아 게르마니아 지역에 대한 그의 지배를 강화시켰다. 그는 특히 당시 유행하던 아리우스파가 아니라 정통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집권 초기 그는 아리우스파로의 개종을 고민했다. 다른 게르만 왕국과의 협조라는 현실적인 면이나 왕을 신성시한다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아리우스가 매력적이었다.⁹ 하지만 그는 정통파로 개종했고, 그의 판단은 왕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선택이 되었다.

2) 클로비스 개종의 특징

클로비스가 개종했던 당시 역사적 정황은 매우 복잡했다.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갈리아-로마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한 여러 민족들의 충돌이 격렬한 시기였다. 당시 많은 게르만족들도 개종했지만, 대부분이 아리우스파로의 개종이었다. 그들을 아리우스파 신앙으로 개종시킨 선교사는 야만족 출신의 울필라스(Ulfilas)였고, 아리우스파는 신학적 성격보다는 교회적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었다. 즉, 그들은 정통파 로마 교회를 인정하

⁷ 그레고리우스 주교가 남긴 『프랑크족의 역사』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클로틸다(클로비스의 아내)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당신께 희망을 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장 콕비, 『세계 교회사 여행1: 고대, 중세편』, 노성기, 이종혁 역 (서울:가톨릭출판사, 2012), 305.

⁸ 루스 터커, 『선교사 열전』, 박해근 역 (서울: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6), 47.

지 않았고, 로마에 상응할 만한 교회 조직을 두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리우스파와 교회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다. 야만족들은 회심한 후에도 로마를 통한 중앙집권적 특징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이다.¹⁰ 이는 정통교리의 입장에서 있던 로마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안정된 종교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서로마제국 안으로 침입해 온 아리우스파로 인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클로비스의 개종은 아리우스파가 아닌 정통파로의 개종이었다. 이는 갈리아-로마인 주교들과 귀족들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갈리아 전체 지배의 발판을 마련하여 서방세계에 프랑크 왕국의 권위를 높여 주었을 뿐 아니라, 서로마의 후계자로서 동로마와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그의 개종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적인 목적의 개종

물론 콘스탄티나나 클로비스의 개종을 단순히 정치적 목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다. 아내의 지속적인 권면과 랭스의 주교 레미기우스의 편지,¹¹ 그가 큰 감명을 받은 성 마르티누스 축제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¹² 하지만 클로비스의 개종, 특히 그가 아리우스파가 아닌 정통파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분명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다른 게르만족들의 틈바구니 속

에서 프랑크족의 부흥을 위해 분명 가늠해 보았을 것이다. 만약 그가 아리우스파로 개종했다면, 지금 프랑스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루스 터커는 노만 칸토(Norman Cantor)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그는 만약에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독일과 프랑스 지방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랑스와 로마가 손잡는다면 그의 정복 사업을 손쉽게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음을 예상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의 개종과 관련하여 전설 같은 극적인 얘기들만 나열하거나, 힘의 논리와 자신의 야망만을 쫓은 결과라고 단정짓는 양극단을 피해야 하겠지만 그의 개종이 정치적인 목적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2) 집단성과 지속성을 가진 개종

클로비스는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부하 3,000명과 함께 집단세례를 받는다. 그 후 프랑크족의 개종은 이어진다. 물론 야만적인 프랑크족들이 이교사상을 버리고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최소한 7세기까지의 시간이 걸렸다.¹³

클로비스의 개종과 세례는 집단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다. 클로비스는 왕이었고, 그 시대의 군주의 개종은 집단개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동개종을 낳았다. 그의 왕국은 계속 성장했고, 집단개종의 영향은 그의 왕국의 세력이 커져 가면서 더욱더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프랑스는 1996년 클로비스가 세례를 받은 지 1,500년 되는 해라며 대대적인 기념식을 거행했다.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가 프랑스를 건국한 인

⁹ 정지문, “성 마르티누스 숭배와 클로비스의 개종”, 『역사교육』 vol. 89(2004), 247.

¹⁰ 롤란드 베이턴, 『세계교회사』, 이길상 역 (교양: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2), 140-141.

¹¹ 이 편지에는 클로비스가 벨티카 세쿤다의 행정권을 양도받은 데 대한 축하의 말과 주교들의 말을 경청하라는 권면의 말이 들어 있다.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 15』 (서울: 기독교문사, 1996), 125.

¹² 정지문, op. cit., 236-237.

¹³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op. cit., 125.

물이며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톨릭으로 개종함으로 프랑스, 나아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가톨릭이 되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그의 개종은 이처럼 현대의 프랑스의 종교와 문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¹⁴

이처럼 클로비스의 개종은 강제성이 있는 집단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강제성과 공동체의 영향이 매우 지속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효성을 가진 집단개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실질적인 영향력이 집단 안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집단개종이 일어난 그룹이 응집력이 약하거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그러한 집단개종은 표면적 집단개종일 뿐이지, 선교역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집단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3) 클로비스 집단개종의 그림자

사실 그의 개종과 함께 진행된 집단세례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클로비스와 그의 부하들의 세례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성경에 따르면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기독교의 입문예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옛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만일 온몸이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옛날과 같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기 때문에, 클로비스와 그의 부하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지만 전쟁은 계속하겠다는 의사 표시였던 것이다.¹⁵ 세례에 대한 그들 나름의 진지함과 순수함이 보이는 동시에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물론 과거의 사건을 현대의 시선으로, 그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의 한계를 알고 있다. 하지만 클로비스의 개종이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이고 이러한 집단개종이 선교사의 한 특징이라 할지라도, 이를 무조건 정당화하는 것이 가진 문제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또한 이를 지금의 진중세례와 관련하여 고민해 보면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간혹 우리의 진중세례의 현장에서도 그 시절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4. 달리트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1) 달리트의 집단개종

인도에서는 지금도 활발하게 집단개종이 일어나고 있다.¹⁷

달리트는 인도 신분제도하의 불가촉천민(untouchable)을 가리킨다. 카스트에 따른 인도인의 신분은 브라만(승려), 크샤트리아(왕이나 귀족), 바이

¹⁵ “이야기 세계교회사(153): 야만족 클로비스의 개종”, 『국민일보』 2005. 8. 14.

¹⁶ 2012년 5월, 연무대 군인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실시된 합동세례식을 취재한 「기독교공보」(2012. 5. 26)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 세례식에서는 진정성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OO 훈련병은 ‘나의 종교는 불교다. 교회 안 다니는 전우들이 대부분 선물이나 받으려고 참석하길래 나도 그냥 왔다’며 ‘세례를 받아도 종교를 바꿀 생각은 절대 없다’고 전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기자가 훈련병들이 도열한 1백 번째 줄을 직접 조사했다. 그 결과 20%, 82명 중 18명 이상의 훈련병들은 이미 가톨릭과 불교 신자이고, 세례보다는 선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더운 날씨에 세례도 받았는데 왜 연병장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훈련병도 있었으며, ‘이날 세례 받아도 일요일에는 성당에 가겠다. 나는 가톨릭 신자다’ 하고 고백하는 이도 있었다. 세례자 서약이 유명무실해졌다. 세례인원 늘리기보다는 진짜 세례신자 만들기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¹⁴ 이학수, “클로비스 기념식과 프랑스 국민의 정체성 문제”, 『역사와 세계』 No. 28 · 29(2005), 187.

사(상인), 수드라(피정복민 및 노예, 천민) 등 4개로 구분되며 최하층인 수드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 있다. 불가촉천민은 ‘이들과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카스트를 부여 받지 못하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란 의미로 아웃 카스트(outcaste)라 불리는 일도 있다.

불가촉천민은 계급(카스트)제도 밖의 구성원으로 인간사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아래 있는 무엇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장 비천하다고 여기는 직업에 종사해 왔다. 오물 수거, 시체 처리, 가죽 가공, 세탁, 도기 제조 등이 주로 그들의 몫이었다. 일반인들은 그들과 접촉하거나 심지어는 그림자가 스치기만 해도 오염된다고 생각했다.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그들을 보기만 해도 오염된다고 생각했기에 불가촉천민은 밤에만 활동해야 했다. 또한 그들에겐 사원 출입이 금지되고, 마을 공동우물의 물을 길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신발을 신을 수도 없었고, 버스나 기차에 빈자리가 있어도 앉을 수 없었다. 이러한 극단적 차별은 19세기 말까지 성행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불가촉천민의 인권운동과 카스트 철폐운동이 시작되었다. 1930년대 마하트마 간디는 그들에게 신의 자녀라는 의미의 하리잔(Harijan)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에 숨어 있는 동정적 의미에 반발하며 스스로를 핍박받는 자라는 뜻의 달리트(Dalit)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달리트는 불가촉천민의 대표적 명칭이 되었다.¹⁷

달리트는 동질성의 집단이 아니다. 달리트 사이에도 관습에 따라 서로

상대방을 경멸하기도 하며, 함께 결혼은 물론이요 식사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적 차별과 무거운 의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힌두교가 지배하는 인도 사회에서 달리트들은 영원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영국의 식민지배 이전에 달리트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2천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힌두교의 지배는 달리트들의 차별과 억압을 위한 유효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물론 불교나 자이나교와 같이 카스트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큰 운동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달리트의 문제 해결은 달리트를 규정하고 있는 힌두교에 대한 비판이나 개혁운동이나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영국의 식민지배하에서 이러한 달리트들의 집단개종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¹⁹ 이러한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기독교로만 개종하는 것은 아니며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로의 집단개종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²⁰ 이러한 개종에 대해 영국 식민지배하에서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독립운동의 차원에서 비판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고통에 직면해 있는 달리트의 상황은 계속된 집단개종을 낳을 수밖에 없었

¹⁹ 강희숙, “민족주의와 달리트의 집단개종(1858-1947)”, 『인도철학』 vol. 25(2008), 219-220.

²⁰ 불교 집단개종과 관련해서 암베드카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달리트로 태어났지만 독립 인도의 초대 법무장관이자 제헌의회의 헌법기초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불가촉천민의 해방자’이자 12세기 무슬림의 침공 이후 힌두교에 강제 포섭된 인도 불교의 부활을 이끈 ‘네오 부디즘’의 창시자였다. 그는 나시크 대회에서 “불행하게도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으나 힌두교인으로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대로 1956년 10월 14일, 나그푸르에서 그를 따르는 50만 명의 군중과 함께 ‘불교 집단개종의식’을 실행하였다. 게일 움베트, 『암베드카르 평전 - 간디와 맞선 인도 민중의 대부』, 이상수 역 (서울: 필맥, 2005).

¹⁷ “인도 불가촉천민 위해 한국교회 나서 달라, 월슨 신검 성공회 주교 한국 방문”, 『국민일보』 2009. 9. 11, “이 잔인한 종교를 버린다” 『한겨레』 2002. 11. 6.

¹⁸ FMG지식엔진연구소 편, 『시사상식 바이블』 (서울: 박문각, 2008), 435.

다. 영국 식민지배시대는 물론 그 이후 지금까지 달리트의 집단개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2) 달리트 집단개종의 특징

(1) 정치적 목적의 개종: 카스트 탈출

달리트의 집단개종은 누가 뭐라 해도 정치적인 목적이 주요하다. 물론 불교, 기독교, 자이나교 등 다양한 종교로의 집단개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선 힌두교를 벗어나려는 의지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다음으로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앙적이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후자 또한 정치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²¹

실제로 이는 정치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영국이 식민지배하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달리트들이 집단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인도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다. 이처럼 개종한 달리트들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을 때 영국 정부는 인도통치법(the Government of India Act, 1909)을 반포한다. 여기에서는 인도를 단일한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관심을 가진 집단들의 집합으로 규정했으며, 각 집단의 이익을 위해 중앙의회와 지방의회에 인구비례 의석을 할당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몇백만에 이르는 기독교로 개종한 달리트들이 기독교공동체에 속해야 하는지 달리트에 속해야 하는지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된다.²²

이는 각 집단의 이익을 수에 비례해서 정치적으로 배려해 주려는 목적

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달리트 기독교인들은 달리트라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 취급되었고, 영국정부의 이러한 관점은 독립 인도 정부에 의해 계승된다. 그 때문에 독립 이후 실시된 보상차별정책의 혜택에서 달리트 기독교인들은 배제된다. 보상차별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속정부에 의해 주로 달리트 힌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간주된 달리트들은 제외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힌두교로의 재개종사건이 달리트 안에서 일어나기도 했다.²³ 이처럼 달리트의 개종이란 생존이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2) 집단성과 지속성을 가진 개종

달리트 개종이 가진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성이 분명하고, 지속성을 가진 개종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종교로의 재개종 역시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꼭 보상차별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재개종이 벌어졌는데, 그만큼 조직의 결속이 강하고, 분명한 목적의식 속에서 개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후속조치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지속성이란 종교적인 지속성이 아니라 집단의 정체성으로서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종교든 달리트 공동체가 결정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이를 잘 따랐다. 왜냐하면 달리트의 개종은 애초에 공동체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신앙적인 요구가 아

²¹ 강희숙, *op. cit.*, 225.

²² 박성기, “인도 달리트 신학의 배경과 의의”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2), 30-31.

²³ 특히 1982년 8월 15일, 안드라 프라데쉬의 스리카쿨람(Srikakulam)에 있는 베라가담(Veeraghattam)이라는 마을에서는 침례교회와 로마 가톨릭에 소속되어 있던 782명의 달리트 기독교인들이 힌두교로 재개종한다. 심지어 1980년대 초에는 소수의 달리트 그리스도교인들이 교회 안에 편재(遍在)한 불평등과 불의(不義)에 대한 항거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박성기, *op. cit.*, 43.

나라 생존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종교가 자신들의 공동체에 가장 유익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이는 다른 종교로의 재개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단개종으로 형성된 달리트의 교회들은 주로 서구의 영향을 배제한 토착화된 교회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것이 단지 집단개종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인도인들의 자생적 교회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²⁴ 하지만 그만큼 달리트 신앙공동체는 그 집단적 일치와 지속성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개종보다도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로 안착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적인 기독교와는 다른 그들만의 교회를 형성할 위험성이 있다.

(3) 달리트 개종의 그림자

달리트의 개종이 인도 선교에 있어 눈에 보이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달리트가 아닌 카스트 안에 있는 인도인들에게 선교할 때, 기독교란 달리트의 전유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등 한계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²⁵ 달리트의 개종은 매우 효과적인 전도방법이지만 동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신앙보다는 공동체가 더 중요한 달리트의 집단개종의 경우에는 지극히 자신의 공동체 환원주의적 신앙형태로 발전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순수한 교리를 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그것이 기독교이

든 기독교의 옷을 입은 신흥종교이든 달리트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달리트의 집단개종이 선교를 위한 중요한 기회이며 도구인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이를 통한 결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몇몇 부정적인 재개종의 역사나 토착종교화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달리트의 집단개종 또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집단개종이란 그 효율성만큼이나 부작용이 많은데, 그나마 진중세례의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한 전제조건인 집단 지속성이 존재하기 어렵다 보니 자연스레 효율성과 관련된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클로비스나 달리트의 개종과는 달리 진중세례식은 단지 표면적으로만 집단성과 지속성을 지닌다. 이는 큰 문제이다. 물론 군대는 강제성을 가진 집단이 분명하지만 훈련소에서 진행되는 진중세례의 정황은 좀 복잡하다. 세례식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다. 물론 훈련기간 동안에는 가능하지만, 수료 후에 전후방 각지로 흩어지는 현재의 신병관리 시스템 속에서 선교역사에 등장하는 집단개종이 가진 집단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선교역사에 등장하는 집단개종의 경우에는 분명한 집단성과 지속성이 담보된다. 이러한 집단세례나 개종이 단회적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공동체의 강제력이 작용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중세례식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물론 군선교연합회를 비롯한 기관을 통해 세례명단이 민간결연교회에까지 전달되고 관리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후전도' 해야 하는 군인교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군선교의 특성상 필요한 '선세례'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정당성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선교방법이 필요하

²⁴ 김경미, "인도 내 자생적인 교회 개척을 위한 수단과 전략", 제1회 인도선교대회: 인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걸음 (서울: 미전도종족선교연대, 2006), 33-45.

²⁵ Ibid., 45.

다는 것이다.

5. 진중서약식과 세례교육

1) 새로운 대안, 진중서약식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례는 신앙의 확인이요 구원받는 백성임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건한 예식이다. 하지만 군대와 군선교의 특수한 상황은 세례의 본질과 목적에 앞서 다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객전도의 상황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세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지함을 드러내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회심을 가볍게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른 손을 물 밖에 내밀고 세례를 받았던 클로비스와 그의 부하들이 보여 주었던 나뭇의 진지함과 순수함이 아쉬운 현실이다. 자칫하면 신앙의 신비와 경건함을 경험해야 할 세례의 순간이, 교회의 가벼움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의 의미와 유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하지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과거 진중세례식은 훨씬 더 실효성이 있었다. 세례를 받은 병사들은 이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거나 적어도 다른 종교로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랜드슬램’²⁶이 유행어처럼 쓰인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각 종파의 성령이 주는 의미는 그리 진중하지 않다. 이러한 시대에 ‘선세례 후전도’라는 과거의 구호로 세례

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다. “일단 침을 발라 놔야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논리이다. 물론 전적으로 정치논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 순서로 보았을 때 힘의 논리가 먼저라는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세례란 회심을 동반한다. 회개와 뉘우침이 없는 세례는 위험하다. 하지만 훈련소의 진중세례식에서 회심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세례를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 그 세례가 생각이 나서 제대 후에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자대에 와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어 하거나, 민간교회에서 군세례 경험을 감추고 재세례를 감행하는 사람들 또한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는 형식적인 세례식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약식이 보다 실효성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세례식 서약에 군인교회에 꼭 출석하겠다는 내용과 선샤인 운동과 관련하여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서약 후에, 등단해서 축복(안수)기도를 받고, 선샤인 배지와 같은 기념품을 달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지금의 진중세례가 주는 것 이상의 감동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군세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까지 서약식 현장에 동참시킬 수 있어, 한국교회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중서약식은 민간교회와의 연결뿐 아니라, 서약식 이후 연속성 있는 세례교육을 통해 기존 군인교회와의 연결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²⁶ 기독교의 세례, 천주교의 영세, 불교의 수계를 동시에 다 받은 사람을 일컫는 은어(隱語).

※ 진중서약식 예문

– 서약자 점명(호명하여 앞자리 앉게 하거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

– 예식사

“로마서 10장 9-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서약자 여러분! 오늘 서약식은 우리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서약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목사는 서약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군생활 가운데 승리하며, 군인교회 신자로서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서약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고백이 단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서약식이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서약(목사가 서약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거룩한 서약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의 신앙과 결단의 증거로 문답하고자 하니 경건하게 진심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선사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 문 1 : “오늘 서약하는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 답 : “예/아멘.”

– 문 2 : “오늘 서약하는 여러분은 지난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하십니까?”

– 답 : “예/아멘.”

– 문 3 :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 답 : “예/아멘.”

– 문 4 : “오늘 서약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군인)교회에 출석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약속하십니까?”

– 답 : “예/아멘.”

– 문 5 :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추가 질문) “오늘 서약하는 여러분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형제들은 앞으로 (군인)교회 출석하며 세례교육

을 받고, 세례를 받아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약속하십니까?”

– 답 : “예/아멘.”

– 축복(안수)기도

서약자들이 집례자/기도자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 집례자가 서약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 배지 부착/교환

축복기도 직후 집례자 혹은 보조자가 서약자에게 달아 주거나,

축복기도 이후 전체가 기립하여 서약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서로에게 ‘선샤인’ 배지를 부착해 준다.

– 공포

2) 연속성 있는 세례교육

일반적으로 군인교회에서는 교회에 출석하는 전입신병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새신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데,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 1주 혹은 4주 정도까지 말 그대로 새 교인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세례에 대한 교육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미 대부분이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나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 따로 교육하지 않는다.

만약 훈련소에서 세례가 아니라 서약식을 진행하고, 서약식에 참여한 명단을 군인교회로 제대로 전달하고, 전입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서약식의 내용과 연계된 교육과 함께 세례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대전입 한두 달 안에 세례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체 군인교회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교재 편찬도 가능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면 훨씬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특히 교재 개발과 관련해서는 군인교회 안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와 연계하여 유명한 외부인사와 기독교 출판사 혹은 일반 출판사들의 도움을 받아 양질의 결과물²⁷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 종료 후에는 기세례신자에게는 수료증,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수료증이 포함된 세례증을 군선교연합회나 한국군종목사단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발급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나가는 말

과거 세례식이 주는 진중함과 엄숙함에 한없이 진지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병사들의 세례식을 대하는 자세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물론 모든 참여자들이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 이상으로 세례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이를 통해 귀한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선세례’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를 선교 역사 속의 집단개종(세례)으로 설명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

²⁷ 가톨릭에서는 김태회를 표지 모델로 한 교리서를 발간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제목의 교리서에는 김태회가 머리에 미사보를 쓰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책을 받기 위해 성당에 많은 병사들이 물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신우들의 교육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된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군선교 현장에서 진중세례운동을 실천해 온 것은 실질적인 효과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진중세례식은 과거처럼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물론 수많은 군선교 사역자들의 노고에 대해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매우 조심스럽다. 하지만 ‘선세례’의 실효성이 공격받고, 집단세례의 진정성에 대한 진지한 질문 앞에 더 이상 대충 얼버무릴 수 없는 현실에서 ‘진중서약식’이라는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서약식 또한 완벽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선교역사에 등장하는 집단개종의 결정적 요소인 집단 지속성이 없는 훈련소의 세례보다는, 단기적이거나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각 군인교회에의 세례식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환경과 제도 마련에 힘쓰다면 군선교의 열매는 더욱더 풍성하리라 기대해 본다.

군선교의 중요성과 특별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내용을 담는 그릇도 바뀌기 마련이다. 물론 새로운 그릇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선교현장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판
권
소
유

군선교신학 11

2013년 10월 25일 인쇄

2013년 10월 30일 발행

발행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주소 |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 | 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

제작처 | 쿼란출판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184-3

TEL | 02-745-1007, 745-1301, 747-1212, 743-1300

영업부 | 02-747-1004, FAX / 02-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 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www.qumran.co.kr>

E-mail | qrbooks@gmail.com

qrbooks@daum.net

한글인터넷주소 | 쿼란, 쿼란출판사

등록 | 제1-670호(1988.2.27)

값 18,000원

*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